Weekly
FX Economis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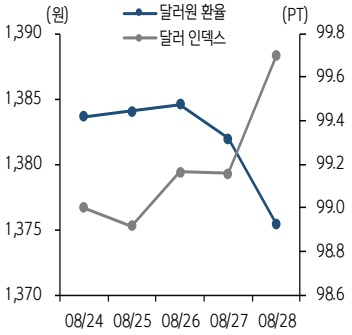
2026-08-31

오디세이를 편하게 볼 수 없는 이유

FX Talk & Insight : 금주 1,370~1,400원 전망

한국은행의 2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잭슨홀 미팅에서 워시 연준 의장 발언에 대비한 시장 움직임으로 원화 환율이 저점을 1,370원대까지 하향. 그러나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워시 의장의 발언으로 달러화가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 적지 않아. 달러-원과 달러화(DXY)의 괴리감 빠르게 축소된 만큼 저가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는 시기. 미국 고용 지표 및 한국 수출입 실적 살펴보는 가운데, 정책 이벤트가 시장 변동성을 만들어내기 좋은 여건일 수도

외환시장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370	1400
달러엔	159.0	161.0
유로달러	1.152	1.167

요즘 영화관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디세이는 기원전 13세기 그리스-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화의 모티브인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를 납치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해상 통로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가지고 있는 트로이가 신흥 무역 강자로 떠오르는 그리스에 통행세를 메기면서 촉발되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패권 경쟁으로 중동 전쟁과 같은 군사적인 충돌 뿐만 아니라, 경쟁국에 대한 관세와 산업 규제 등으로 남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경쟁도 피하기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귀향길에서 보듯이 설사 패권 경쟁의 승자일지라도 재정 악화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과잉 부채 등의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어떻게 보면 소위 전략적 국가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빅테크(영웅)와 정부(신)이 뒤섞여 국가-산업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이 영화 속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부채 급증으로 촉발된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과 연준의 독립성 우려 등은 트럼프 시대에 필연적인 결과라고 여겨진다. 비록 베센트 재무 장관이 바이백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며 시장을 다독이고 있지만, 재정 긴축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격 왜곡을 유발해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중동 전쟁을 경제 제제로 전환하고,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대미 투자를 압박하며 재정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광고할 것이 뻔하다. 여기에 시장금리 안정을 위해 연준이 나서줄 것이라는 믿음도 갖고 있을 것이다.

결국 재정에 대한 의구심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연준의 금리인하라면 금상첨화겠지만, 워시 연준의장이 물가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금리인상을 최대한 늦추던가 양적완화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비전통적 수단을 통해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다. 결국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잭슨 홀 미팅에서의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입장으로 독립성을 중시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연준은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매파적인 색깔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워시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거한 만큼 향후 발표될 고용과 물가에 따라 금리 경로는 수시로 변화될 수 있고,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도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던 밖으로는 베센트의 금리 상승 억제로 미달러가 뒤로 밀린 가운데 안으로는 한은의 백투백 인상 아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업체의 달러 공급으로 달러-원 환율이 1,370원대까지 숨 가쁘게 내려왔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소멸되지 않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업체도 결국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 수급 공백을 메우며 1년여 간 벌어졌던 달러-원 환율과 달러 인덱스(DXY)와 괴리가 해소되며 원화의 저평가 논란은 희석되고 있다. 게다가 TSMC를 필두로 반도체 경쟁을 하는 대만 달러(TWD)와도 거리감이 없어지며 환율 측면에서의 우위도 사라졌다. 물론 무역 흑자와 반도체 호조가 원화 강세를 지지하지만 기업들도 이제 주판을 다시 두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Weekly
FX Economis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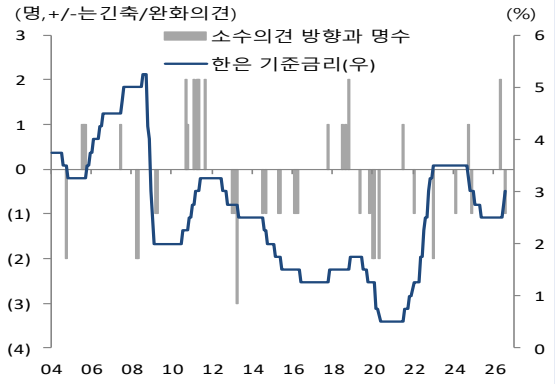
오디세이를 편하게 볼 수 없는 이유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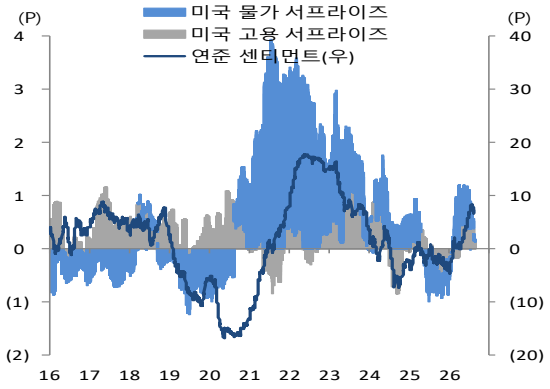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 백투백 인상 선택. 경제성장 전망치 대폭 높인 한편 점도표도 상향조정 했으나 향후 인상에 속도조절 예고

선제적 대응 강조한 한은과 달리 포워드 가이던스 배제하며 더딘 행보 시사한 워시 의장과 대비. 향후 연준 내 이견과 불확실성 야기할 소지

백투백 인상 이후 속도조절 암시한 한국은행



연준내 이견과 불확실성 남길 잭슨 홀 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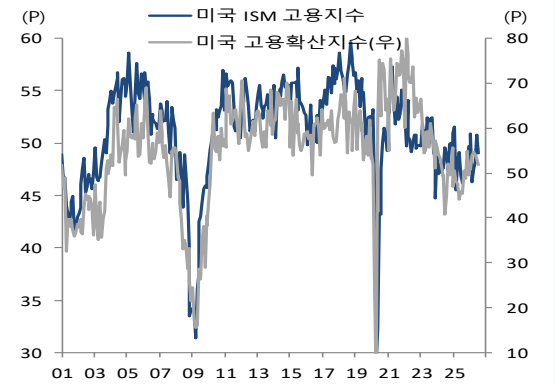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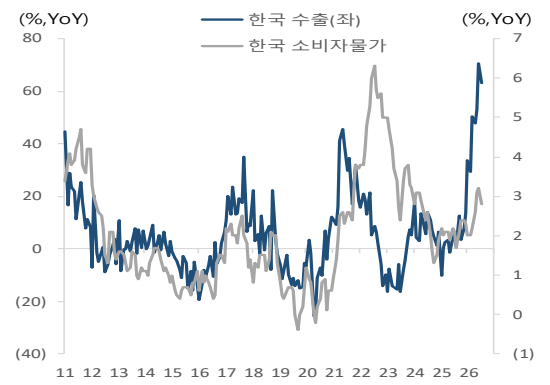
물가 경계 다소 완화되었으나 미국 고용지표 발표 대기. 지난달 쇼크에서 벗어날 것이나 AI 상용화로 고용과 해고 모두 크게 늘어나지 못할 듯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뒷받침할 한국 수출과 소비자물가 지표 확인 필요. 수출의 고공행진 이어지나 반도체에 집중된 점은 다소 부담

AI 혁신으로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 난해



한은의 다음 행보 결정할 국내 수출과 물가



자료 : FRB,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에 수출업체의 달러 공급 더해지며 달러-원 환율 빠르게 하락. 지난 1년간 괴리 커졌던 달러 인덱스에 다시 수렴

무역 흑자 당분간 이어지며 환율 하락 지지할 수 있으나, 정상화 진행되며 속도 제한. 대만과 경쟁하는 반도체 기업도 환율 우위 소멸을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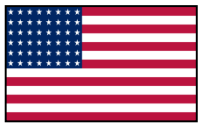
1년 여간 벌어진 미달러와의 괴리감 해소

하지만 대만과의 환율 경쟁 우위도 같이 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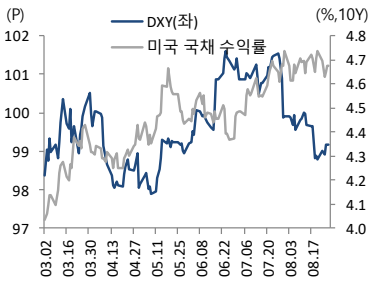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오디세이를 편하게 볼 수 없는 이유

FX Navig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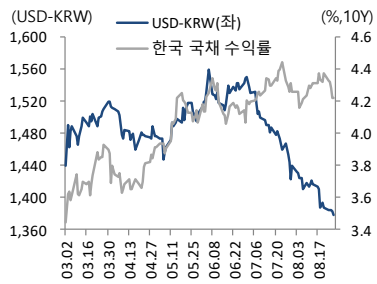


DXY(미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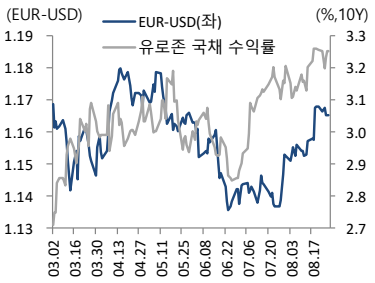
리뷰	벤 트 장관이 바이백 추가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채수익률을 관리 다소간의 안도감 나타나며 미달러 추가 하락은 제어 PCE 물가 기대치 부합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감 후퇴한 반면 ECB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지며 달러 반등도 저지
프리뷰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 독립성 사이 기로에 선 워시 의장의 잭슨홀 결과가 시장에 영향 미칠 듯 정책 공조 및 통화 긴축 자제 시그널로 읽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나 연준 전체의 입장과 괴리감 발생 물가에 이어 고용도 금리인상 불가피성 지지할지 확인할 필요

USD-KRW(한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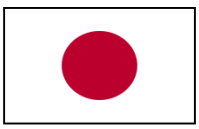


리뷰	환율이 주초 마침내 1,380원 하향 돌파 그러나 주초 외인들의 한국 주식 매도세로 추가 하락하지 못했음 27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직전에 환율이 하락한 뒤 인상 발표에 오히려 차익 실현 나오며 환율 반등했으나 1,380원 부근을 맴돌았음
프리뷰	잭슨홀 미팅의 케빈 워시 의장 발언 곱씹으며 등락하겠지만 그 여파는 단기에 그칠 듯 강한 방향성 만들어낼 만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기 어렵기 때문 하락 모멘텀이 둔화된 탓에 환율이 단기 등락 이후 박스권 형성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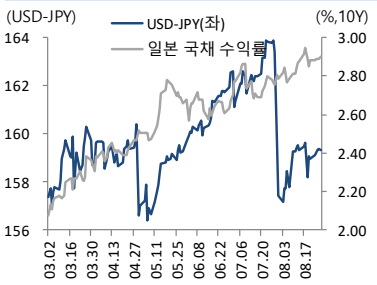
EUR-USD(유로화)



리뷰	20~21일 한때 1.17 상회했던 유로화가 상승을 멈추고 이번 주는 소폭 하락 유럽 경제 모멘텀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었기에 미국채 장기물 약세가 진정되며 달러가 추가 하락 멈추며 반등한 영향 잭슨홀 미팅 앞둔 것도 유로화 강세에 장애물로 작용
프리뷰	달러 약세에 기댄 유로화 강세가 일단락된 듯 유럽 천연가스 비축율이 예년 대비 크게 낮아 가스 가격이 3년 여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것도 유로화에 부담으로 작용 단기에는 잭슨홀 미팅의 워시 연준 의장 발언 곱씹으며 등락 가능



USD-JPY(일본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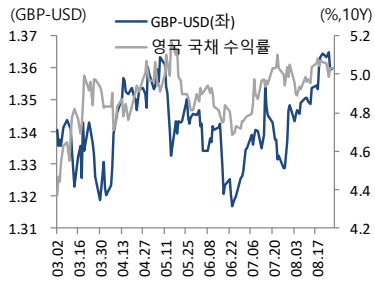
리뷰	환율이 160엔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으나 개입 경계감 탓에 속도는 더디고 일중 변동폭도 축소 도쿄의 8월 CPI(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1.8%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했고 BOJ 부총재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프리뷰	엔화 약세의 핵심 배경인 재정 우려를 의식해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40조 엔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 다만 BOJ가 매파적 행보 밀어붙이기에 한계 뚜렷하다는 인식은 여전 160엔을 다시 넘볼 듯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오디세이를 편하게 볼 수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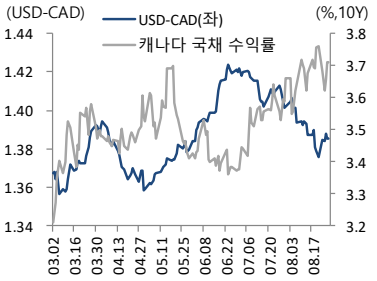
FX Navigator

GBP-USD(영국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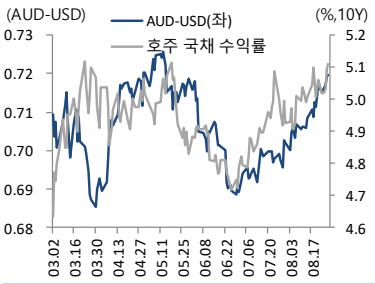
리뷰	1.36을 훌쩍 넘겼던 GBP가 이번 주에는 유로화와 더불어 일보 후퇴. 특히 26일 미국의 7월 PCE 인플레이션의 견고함을 확인한 직후에 1.36 하향 돌파. 다만, 추가 하락 제한되며 주 후반에는 1.36 부근에 등락
프리뷰	최근 GBP 강세가 주로 달러 약세에 기인하고 있어, 달러 방향성이 관건. 달러 약세가 주춤해진 데다, 최근 5년간 9월에는 달러 강세/GBP 약세 경향 뚜렷하고(5회 중 4회) 가스 가격 부담도 커진 만큼 GBP가 다소 눌리는 흐름을 예상

USD-CAD(캐나다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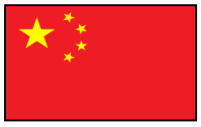


리뷰	미국과 캐나다의 잠정 무역 합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표적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이번 주 환율이 급반등. 주초 환율이 즉각 1.38 회복했으나, 추가 상승은 제한되며 주 후반 1.38 중반에 형성
프리뷰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어 환율 상승 리스크에 노출. 새로운 미국 관세는 8월 23일 발효된 반면, 캐나다의 對美 맞불 관세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겨냥해 시차를 두고 9월 8일 시행. 무역 긴장이 성장 및 통화정책 기대에 영향 미치면서 CAD에 부담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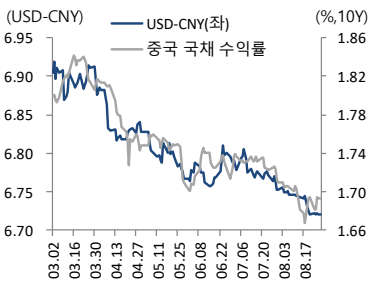
AUD-USD(호주 달러)



리뷰	AUD가 하반기 상승세를 이어가며 3개월 만에 다시 0.72 돌파를 타진. 26일 발표된 호주의 7월 CPI가 예상을 웃돌며 호주의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부상. 호주 국채 금리도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하며 매파적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
프리뷰	3분기에 호주 인플레이션 가속화되어, 호주 중앙은행이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 형성. AUD 상승 압력 유지될 듯. 단기적으로 시장 관심 쏠린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美 연준 의장 발언도 AUD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듯



USD-CNY(중국 위안)



리뷰	위안화 강세가 이번 주 들어 주춤해지며 6.72 중심으로 비교적 좁은 폭에서 등락(USD/CNH).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 제재를 위협했지만, 시장은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위안화가 거의 반응하지 않았음
프리뷰	중국이 고시환율 통해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잭슨홀 미팅에서 美 연준 의장의 메시지 곱씹으며 단기 등락 가능. 미국의 對中 금융 제재 리스크 있지만, 9월 美·中 정상회담(9/24) 앞두고 미국이 자제할 듯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오디세이를 편하게 볼 수 없는 이유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8-31-2026 8:00	SK	광공업생산 YoY	Jul	--	5.80%	82
8-31-2026 10:30	CH	제조업 PMI	Aug	49.7	49.2	94
8-31-2026 10:30	CH	비제조업 PMI	Aug	49.6	49	75
9-01-2026 9:00	SK	수출 YoY	Aug	64.40%	62.80%	92
9-01-2026 9:00	SK	무역수지	Aug	--	$30324m	63
9-01-2026 18:00	EC	CPI 예상 YoY	Aug P	--	2.90%	76
9-01-2026 22:30	CA	S&P 글로벌 캐나다 제조업 PMI	Aug	--	53.5	90
9-01-2026 23:00	US	ISM 제조업지수	Aug	55.4	55.6	95
9-01-2026 23:00	US	ISM 구매물가지수	Aug	71.9	71.1	76
9-02-2026 8:00	SK	CPI (전년대비)	Aug	--	2.80%	95
9-02-2026 10:30	AU	GDP SA (전기대비)	2Q	--	0.30%	93
9-02-2026 21:15	US	ADP취업자 변동	Aug	39k	44k	93
9-02-2026 22:45	CA	캐나다 은행 금리결정	2-Sep	2.25%	2.25%	98
9-02-2026 23:00	US	제조업수주	Jul	0.10%	-0.30%	86
9-03-2026 6:00	SK	외환보유액	Aug	--	$427.95b	58
9-03-2026 10:30	AU	무역수지	Jul	--	A$1929m	86
9-03-2026 10:45	CH	레이팅독 중국 종합 PMI	Aug	--	50.8	71
9-03-2026 10:45	CH	레이팅독 중국 서비스 PMI	Aug	--	50.4	73
9-03-2026 21:30	US	무역수지	Jul	-$71.6b	-$73.3b	85
9-03-2026 21:30	US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2Q F	--	1.40%	50
9-03-2026 23:00	US	ISM 서비스 지수	Aug	54.3	54.1	83
9-04-2026 8:00	SK	BoP 경상수지	Jul	--	$49730.4m	74
9-04-2026 21:30	US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Aug	60k	-23k	99
9-04-2026 21:30	US	실업률	Aug	4.20%	4.10%	89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380.5	205.5
고가	1,381.5	205.5
저가	1,371.0	204.1
종가[1)]	1,372.5	204.2
전일비	-8.4	-1.3
평균환율	1,376.5	205.1
NDF(1M)	1,376.0	
거래량	165(억불)	210(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375.40	-6.60
JPY/KRW	859.77	-7.31
EUR/KRW	1,593.91	-16.44
GBP/KRW	1,862.92	-15.64
AUD/KRW	985.70	-8.60
CAD/KRW	989.79	-7.84
USD/JPY	160.09	0.70
EUR/USD	1.1585	-0.0068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2)]	전일비
1Y	3.498	0.055	3.455	0.09
2Y	3.720	0.058	3.455	0.02
3Y	3.823	0.062	3.520	0.01
4Y	3.901	0.062	3.570	0.00
5Y	3.949	0.062	3.585	0.00
7Y	4.023	0.063	3.625	0.00
10Y	4.086	0.061	3.520	0.00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3.13	+0.01
통안 1년	2.18	0.00
통안 2년	3.72	+0.05
국고채 3년	3.80	+0.04
국고채 5년	4.02	+0.05
국고채 10년	4.29	+0.06
국고채선물(3년)	103.25	-0.09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45	-20.00	3.29%
3M	-160	-20.00	3.29%
6M	-380	0.00	3.44%
1Y	-790	0.00	3.63%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3)]	전일비
1Y	4.13	0.131	4.15	0.136
2Y	4.34	0.134	4.21	0.149
3Y	4.40	0.131	4.21	0.139
5Y	4.48	0.117	4.21	0.114
10Y	4.72	0.072	4.34	0.074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6,788.88	-123.49	-1.79%
미국 DOW	53,559.99	-9.45	-0.02%
중국 상해종합	3,952.18	-4.39	-0.11%
일본 NIKKEI 225	66,405.56	+273.58	+0.41%
영국 FTSE 100	10,824.26	+31.72	+0.29%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83.40	-0.13
금 (선물)	4,494.70	-115.00
3M TERM SOFR	3.76	-0.01
3M EURIBOR	2.57	+0.02
KOR 5Y CDS	21.75	+0.11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